

청소년의 가족환경 및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차정원* · 이형실**1)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Environment, Peer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Cha, Jung Won* · Lee, Hyong Sil**1)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environment(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family cohesion), peer environment(quality of peer relationship, peer bullying) and career matur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students of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who reside in Seoul. 425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family environment of adolescents directly affected peer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and peer environment of adolescents directly affected self-esteem. Self-esteem was more highly affected by peer environment than family environment. Adolescents' self-esteem directly affected career maturit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peer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Key words: 부모양육태도(child-rearing attitude),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관계의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 또래 괴롭힘(peer bullying),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1) 교신저자: Lee, Hyong-Sil,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97, Fax: 02-812-5311, E-mail: hslee97@hotmail.com

I. 서론

2013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3배 이상 늘어났고, 2012년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의 25.7%는 '직업'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청소년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 지도 모르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함께 주체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청소년기에 진로에 관한 행동과 의식 발달을 돕는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진로 준비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정을 거쳐 성숙되어 가는데, 이러한 진로나 직업에 관한 의식의 발달을 진로 성숙이라고 한다. 진로성숙도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겪는 경험과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대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계획 수립, 직업 선호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Lee, 1997).

이처럼 청소년의 바람직한 미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진로성숙도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요인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의 연구가 많았고, 여러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므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파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가족환경, 또래환경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태도와 청소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성숙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 뿐 만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적 요

인의 고려가 중요하다.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Park, 2007), 이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관한 확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관련된 요인 중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았고,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Hyung, 2002). 또한 가족기능성 수준이 높게 지각됨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Lee & Han, 1998)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으면 자아존중감 역시 높게 나타났다(Kim, 2011). 한편, 가족과의 관계가 주된 사회적 관계였던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몰입하는 발달적 특성을 보이는데(Choi & Kim, 2003),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An, 2008), 자아존중감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은 각각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Yoo와 Moon(2002)은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애착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이는 진로성숙도를 높여, 자아정체감은 간접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Lee(2008)도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며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족환경, 또래환경,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역할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환경(부모양육태도, 가족응집성)과 또래환경(또래관계의 질, 또래 괴롭힘)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전체적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가족환경(부모양육태도, 가족응집성), 또래

환경(또래관계의 질, 또래 괴롭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의 가족환경(부모양육태도, 가족응집성), 또래환경(또래관계의 질, 또래 괴롭힘)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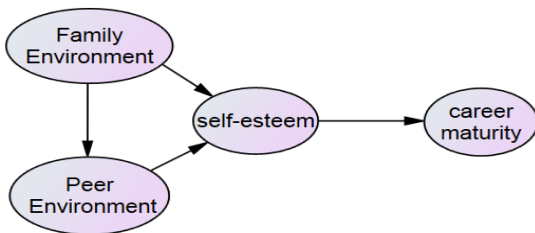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model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의 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은 또래와 원활한 관계를 맺고(Jung, 2002), 어머니가 과보호, 학대, 방임적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남녀아동의 또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며(Kim, 2005), 가족이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수록 청소년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Kim, 2010).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초로 하여 화목하게 생활할수록 또래사이의 공격성이 낮아지고(Lim, 1997),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또래 괴롭힘 수준이 높아진다(An, 2009). 그리고 청소년이 부모와의 갈등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고(An, 2006), 부모로부터 방임경험이 많을수록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하며(Lee, 2004).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감

정을 표현하며 지지할수록 또래집단에서 관계의 유능성이 높아지게 된다(Moon, 2010). 즉,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양육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족 관계를 바람직하게 개선해야 한다(Lee, 2011). 이처럼 가족환경이 또래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환경 및 또래환경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2003), 부모가 자녀를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고 칭찬을 많이 해줄수록 자녀는 자신을 인정받는 존재로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Heo, 2007). 또한 기능적인 가족의 구성원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외부체계의 변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역기능적 가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 간 의사소통이 모호하고 부정적이다(Kim, 2001). 가족응집성이 높고 융통적인 가정의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고(Jeon, 1993),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건전한 인성이 형성된다(Ko, 2009). 가족의 친밀감과 양육방식의 수준이 높게 지각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가족원의 갈등 수준이 높게 지각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im, 2009).

한편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일방적인 애착관계로부터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며 또래와 상호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다(Ainsworth, 1989; Lee, 2008. 재인용). 이러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Joo, 2007), 또래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과 도움, 우정 및 지지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다(Lee, 2008). 청소년기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Kim, 2012). 친구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장을 잘하며 불안감을 덜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1). 또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한 청소년은 우울감 및 불안의 증가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므로(Do, 1998), 또래 괴롭힘은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주목되는 요인이다(Choi & Do, 1999).

3. 가족환경과 및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진로에 대한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이 발달하고(Kim, 2013),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확신이 높아지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결정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o, 2004). 가족응집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가족적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진로태도 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Han, 1998). 또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족이 진로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수집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이 반영된 진로선택을 위해 가족 간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인 진로 계획이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09).

한편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Cho, Choi & Um, 2006)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특히 요즘 청소년은 진로선택에 있어 주로 부모의 의견에 따르면 과거와는 달리 또래의 의견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다(Kim & Song, 2011). 친구와의 애정적인 관계는 진로성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Yoon, 2011; Lee, 2012; Kim, 2012), 이는 친구 사이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정보가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im, 2012).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은 학생은 또래로부터 대인관계에서의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경험하며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게 된다(An, 2008). 이처럼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애착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밝힌 연구(Park, 2007)도 있다.

4.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Super(1957)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직업적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확립되면 자신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여 자기실현의 구체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고, 자신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Song, 2002; Kim, 2012 재인용). 즉 진로성숙은 분명한 자아개념의 발달을 요구하며 자아개념과 일관성 있는 직업을 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Lee,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집단이 진로성숙도가 높았다(Hyoung, 2002). 이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Kwon, 2001; Kim, 2012 재인용).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아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Kim & Cho, 2007), 진로태도 성숙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2007).

5.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족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또

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다루었고,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이러한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Heo, 2012).

가족환경,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에 대해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개념이 진로성숙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아개념이 달라지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Hyon, 2003).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애정적, 합리적, 성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Kim, 2013).

대학생의 진로성숙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온 애착요인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Jeon & Kwon, 2011). 또한 부모양육태도는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고 자란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이에 따라

진로성숙도도 높아진다(Park, 2007).

Emmanuelle(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와 Moon(2002)은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정체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분석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4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자료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0부를 회수하여 총 85%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응답지 8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사용된 자료는 총 425부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25)

Variable	Category	n(%)	Variable	Category	n(%)
Gender	Male	185(43.5)	Number of sibling	0	64(15.0)
	Female	240(56.5)		1	292(68.7)
Monthly income (won)	0~200 million	24(5.6)		2	58(13.6)
	200~350 million	103(24.2)		more than 3	11(2.5)
	350~500 million	143(33.6)	Monthly allowance (won)	0~20,000	103(24.2)
	500~650 million	65(15.3)		2~50,000	198(46.6)
	650 million	4(10.6)		5~80,000	60(14.1)
	others	45(10.6)		8~100,000	14(3.3)
Fa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3(0.7)	100,000	21(4.9)	
	Middle school	8(1.9)	others	29(6.8)	
	High school	145(34.1)	Mo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3(0.7)
	Junior college	37(8.7)		Middle school	9(1.9)
	College	177(41.6)		High school	188(44.2)
Graduate school	55(12.9)	Junior college		35(8.2)	
			College	160(37.6)	
			Graduate school	31(7.3)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이 43.5%, 여학생이 56.5%였다. 형제, 자매 수를 살펴보면 두 명인 경우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외동(15.0%), 세 명(13.6%)의 순이었다. 한 달 가구 소득은 350만원에서 500만원 (33.6%)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에서 350만원 (24.2%), 500만원에서 650만원(15.3%)의 순이었다.

2.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스스로 존중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는 긍정적 문항은 .906, 부정적 문항은 .740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2002)가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중 애정-적대 6문항과 자율-통제 6문항, 총 1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적대적,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애정-적대 .771, 자율-통제 .828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Poter, Lavee(1985)에 의해 개발된 것을 Jun(1993)이 변안한 FACEIII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연결 또는 분리 되어 있는 정도를 뜻하는 가족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0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An(2007)이 친구관계에 대한 기능적 특성 척도를 15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척도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937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Yang과 Do(1999)의 또래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Wiggins와 Winder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PNI)를 토대로 수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 괴롭힘 평가 7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또래 괴롭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Cronbach's α)는 .913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200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rites(1978)의 CMI(진로성숙도검사: Career Maturity Inventory)를 토대로 Lee(1997)가 수정하고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다시 수정한 척도인데, 이 중에서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등 3개의 하위요인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는 결정성 .858, 목적성 .840, 확신성 .821로 나타났다.

3.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분석이 진행되는데, 본 연구의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적정 수준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은 표<Table 2>에 제시되었다.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가족환경, 또래환경,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인들 간에 적절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nalytic variables

Variable	N	M	SD	Skewness(S.E.)	Kurtosis(S.E.)
Child-rearing attitude	425	3.71	0.63	-0.29(0.12)	0.28(0.24)
Family cohesion	425	3.48	0.72	-0.05(0.12)	0.19(0.24)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425	3.93	0.65	-0.12(0.12)	0.59(0.24)
Peer bullying	425	1.72	0.75	1.17(0.12)	0.94(0.24)
Self-esteem(positive)	425	3.74	0.79	-0.27(0.12)	0.02(0.24)
Self-esteem(negative)	425	3.32	0.72	1.18(0.12)	0.09(0.24)
Career maturity(determinacy)	425	3.19	0.95	0.18(0.12)	-0.63(0.24)
Career maturity(finality)	425	3.29	0.81	0.15(0.12)	0.02(0.24)
Career maturity(confidence)	425	2.93	0.80	0.44(0.12)	-0.05(0.24)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2.family cohesion	3.quality of peer relationship	4.peer bullying	5.self -esteem (positive)	6.self -esteem (negative)	7.career maturity (determinacy)	8.career maturity (finality)	9.career maturity (confidence)
1	1								
2	.674***	1							
3	.442***	.496***	1						
4	-.313***	-.273***	-.351***	1					
5	.481***	.548***	.496***	-.273***	1				
6	.463***	.470***	.339***	-.361***	.632***	1			
7	.284***	.293***	.166**	-.193***	.360***	.422***	1		
8	.229***	.180***	.258**	-.210***	.284***	.326***	.521***	1	
9	.380***	.364***	.257***	-.268***	.530***	.624***	.589***	.424***	1

***p<.001, **p<.01, *p<.05

IV. 연구결과

1. 측정 모형 분석

측정도구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활용하였다(<Figure 2>).

모든 경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관측변수는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함께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또래 괴롭힘(-.459), 목적성(.467)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개념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 중 또래 괴롭힘과 목적성은 설명력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났

지만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하게 나타나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수들의 비교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χ^2 을 이용한 적합성 검정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모형의 복잡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χ^2/df 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χ^2/df 는 3이하일 때 매우 양호하고, 5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한다(Song, Kim, 2012). 또한 CFI, GFI, TLI, NF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고, RMSEA는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한 수준, 0.05 ~ 0.1 사이이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Hong, 2000). 또한 RMR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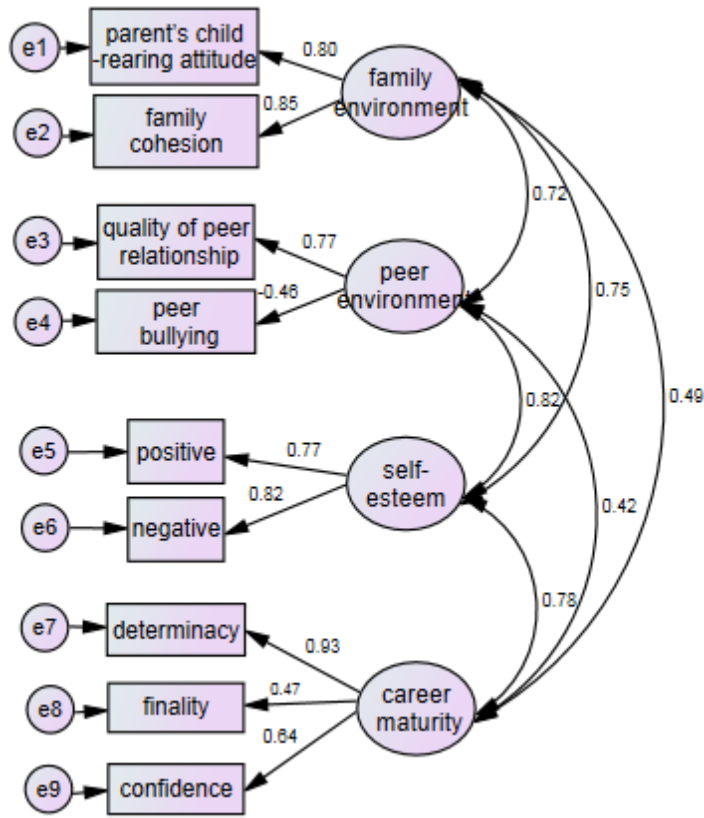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42,479$, $p=.000$, $\chi^2/df=2,360$, CFI=.983, TLI=.967, RMSEA=.057

0.05 이하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Song, Kim, 2012).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2.479$, $\chi^2/df=2.360$, CFI=.983, GFI=.977, TLI=.967, RMSEA=.057로 나타나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모형의 χ^2 값은 39.361이었고, χ^2/df 값은 2.187으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이었다. CFI는 .985, NFI는 .974, GFI는 .979, TLI는 .971로서 모두 0.9

보다 높게 나타났고, AGFI 역시 .949로서 0.8 이상으로 나타났고, RMR은 .019으로 0.0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RMSEA는 .053로서 전체적인 적합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모형은 <Figure 3>에 제시되었다.

3. 구조모형의 경로 분석

연구 모형의 잠재 변수 간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이들 각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족환경→또래환경

가족환경이 또래환경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E=.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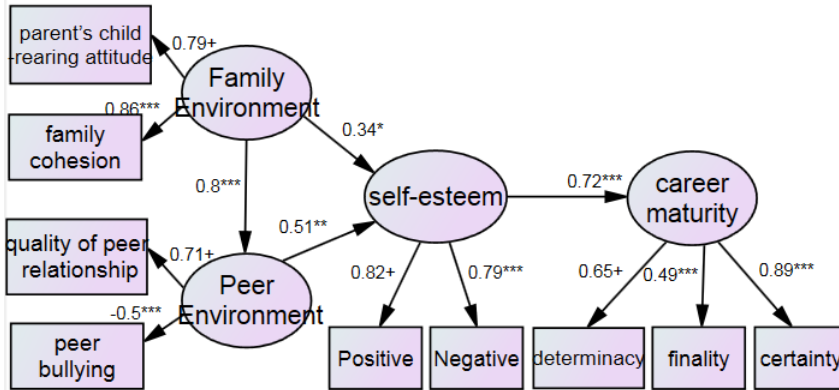


Figure 3. SEM model predicting Career Maturity Inventory. $\chi^2=39.361$, $\chi^2/df=2.187$, $p=.003$, CFI=.985, GFI=.979, TLI=.971, RMSEA=.053

*** $p<.001$, ** $p<.01$, * $p<.05$, +constrained variable

Table 4. 구조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

course	B	β	Standard error(S.E)	Critical ratio(C.R)	p
Family environment → Peer environment	.754	.801	.068	11.077	.000
Family environment → Self-esteem	.445	.336	.218	2.041	.041
Peer environment → Self-esteem	.711	.505	.266	2.676	.007
Self-esteem → Career maturity	.684	.719	.074	9.273	.000

C.R=11.077, $p<.001$). 이는 가족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또래환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가족환경→자아존중감

가족환경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E=.218, C.R=2.041, $p=.041$). 이는 가족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또래환경 → 자아존중감

또래환경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E=.266, C.R= 2.676, $p=.007$). 이는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구조모형의 효과 분석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효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의 경로에 대한 직접 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가족환경, 또래환경,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경로1> 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beta=.719$),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1$).

② <경로2> 또래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beta=.50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Table 5. The decomposition of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ours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family environment → peer environment	.801**	-	.801**
family environment → self-esteem	.336	.405*	.740**
peer environment → self-esteem	.505*	-	.505*
self-esteem → career maturity	.719**	-	.719**
family environment → career maturity	-	.532**	.532**
peer environment → career maturity	-	.363*	.363*

***p<.001, **p<.01, *p<.05

높아진다($\beta=.719$).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간접효과는 0.36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따라서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경로3> 가족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beta=.33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beta=.719$).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간접효과는 0.24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따라서 가족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경로4> 가족환경→또래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원활하고($\beta=.801$), 또래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beta=.50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beta=.719$).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간접효과는 0.291이다. 이는 가족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에 이르는 효과($\beta=.242$)보다 크게 나타나 가족환경과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또래환경과 자아존중감이 차례대로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 것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중 직접적으로 이르는 <경로1> 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의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경로2> 또래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경로4> 가족환경→또래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경로3> 가족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환경이 진로성숙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경

로3>과 <경로4>를 합한 간접효과는 0.5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또래환경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가족환경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또래환경과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425명을 대상으로 가족환경(부모양육태도, 가족응집성), 또래환경(또래관계의 질, 또래 괴롭힘)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함께 전체적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환경은 또래환경에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부모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자녀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태도를 보이고 가족구성원이 친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지지해 줄수록 안정적인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태어나 처음으로 맺게 되는 인간관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자녀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 맺게 되는 또래관계에서, 이전에 상호작용 했던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가치관, 행동, 태도, 애정, 의사소통 등이 바탕이 되므로 이는 또래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진시키고(No, 2010),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도와주는 정서적 연결이 또래집단에서 관계의 유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Moon, 2010)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이 자아존중감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환경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족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가족과의 관계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타인은 또래집단으로, 그 영향력은 부모보다 훨씬 크다(Harter, 1993; Jung, 2010)는 연구 결과와 부모요인, 친구애착 중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애착이라는 연구 결과(Lee & Yoon, 2011),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와의 관계보다 또래 괴롭힘이 더 유의하다는 연구 결과(Kim, 2008)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기까지는 주로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다가 청소년기에는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대상이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는 것(Grotevant, 1997)으로,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또래를 정서적 지지자로 여기고 동일시함으로써 가족보다 또래환경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높은 수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은 각각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미래 진로에 대하여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이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준비하는 성향이 보이며 진로 선택 시 바라는 것과 현실을 타협해 나간다는 연구 결과(Kim, Cho, 2007)와 일치한다. 즉, 청소년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형성할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가족환경, 또래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였다. 또한 가족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beta=.532$) 경로를 좀더 세분화시켜 봤을 때, 가족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경로의 효과($\beta=.242$)보다 가족환경→또래환경→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경로의 효과($\beta=.291$)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족환경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또래환경과 자아존중감이 차례대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가족애착→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의 관계(Park, 2007; Kim, 2013; Lee, 2008), 또래애착→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의 관계(Lee, 2008; Yoo & Moon, 2002)에서 더 나아가 가족, 또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네 가지 요인 간의 구조 관계를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가족환경은 또래환경 형성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을 비교한 결과, 또래환경이 가족환경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간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적 관계로 볼 때, 청소년의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은 자아존중감을 직접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족환경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또래환경과 자아존중감을 차례대로 매개 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긍정적인 또래환경과 가족환경이고, 또래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가족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생활의 근원이 되는 가족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

고 자녀를 대하고 자녀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 서로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가족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나 가족 상담을 통하여 부모가 먼저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또래환경인 만큼, 청소년이 아무리 가족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지각을 하더라도 잘못된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면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또래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는 애착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집단 상담을 통하여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래 사이의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진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 자신의 성격, 재능, 기질,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광범위한 일과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학교당 한명 이상의 진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2013년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835명을 추가 배정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 배치가 완료되게 된다(교육부, 2013). 이와 더불어 직업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 뿐 아니라 현장 체험이나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진로지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가정과 교육에서도 진로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교육은 가족환경, 또래환경,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의 진로성숙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이다. 각 교과별로 진로 성숙의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교과에 비해 가정교과에서는 진로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내용(청소년의 가족관계, 부모양육태도, 또래관

계, 교사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성역할, 자기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정교과는 교과 수업을 통해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로 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과이다. 그러나 중학교의 가정 교과 시수가 점점 줄어들어 교과 수업 뿐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만큼 충분한 가정과 시수를 확보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의 4개 중학교에서 임의 표집 하였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와 가족응집성 두 가지만을 포함하여 가족환경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래환경 역시 또래관계의 질, 또래 괴롭힘 외에 또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요인이 있으므로 다양한 가족환경과 또래환경 요인을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중학교 기술·가정.
- 교육과학기술부 (2013.6.20.). 모든 중·고교(5,525개)에 '진로 진학상담교사' 배치. <http://www.mest.go.kr>에서 2013.11.1. 인용.
- An H-J (2008). *The effect of attachment upon the career development by intermediating the career decision*

-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 Gang University.
- An S-Y (2009).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3), 163-176.
- An Y-H (2006). *Family's conflict and middle-school student's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 Cho M-H, Choi S-M, & Um T-Y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ttachment to parents, friends, teachers on career maturity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15, 81-97.
- Choi J-M & Kim M-R (2003). The study of adolescents' friendships, general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73-394.
- Crites, J. D. (1978). *The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MI*. Monterey, Calif: CTB/Mcgraw-Hill.
- Do H-S & Yang W-K (1999). Relationships between peer acceptance,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1), 223-238.
- Grotevant, H. D. (1997). Family processes, identity development, and behavioral outcomes for adopted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743-5584.
- Heo B-H (2007). *The effects oh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self-esteem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ungnam University.
- Heo G (2009). A study on the longitudinal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maturity, gender, self-esteem and parental attachment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Vocation Education*, 31(2), 193-209.
- Hong S-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yung M-J (2002).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Jeon E-Y & Kwon K-I. (2001).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independence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Meditated by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1), 243-260.
- Jeon G-Y (1993).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system type on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3), 157-173.
- Jo Y-N (2002). *A study on the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s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an's University.
- Jo E-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disagreement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4), 101-112.
- Jung M-G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the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Jung M-S (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Youth Culture*, 25, 140-170.
- Kim A-K (2003).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51-372.
- Kim H-J (2012). *Study on the career awareness of underachieving students and norm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J-H (2001). *A study on how the spinal cord injury family function influences the self-esteem of their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 Kim J-H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th's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Myungji University.
- Kim J-I (2011). *A study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its influence on their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 Kim K-J & Song B-G (2001). The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youth career aspira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1), 91-115.
- Kim M-Y & Cho S-H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Facilitating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Course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9(2), 59-84.
- Kim S-M (2005). *The relation of maternal parenting, self-esteem, and peer victim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Ko E-M (2009). A study on an influence of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f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 on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B-W (2008). *A study for the effect of adolescent's attachment factors and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 Lim G-W (1997).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family atmosphere on peer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Lee H-J (2011). *The effect of child-perceived children's anger and family relation on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Lee H-S & Cho H-I. (2011).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achievement goal and career dec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6(1), 89-105.
- Lee J-S (2012).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on adolescents' career cho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yungki University.
- Lee K-H & Han J-C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 Lee K-H & Yoon M-H (2011). The effect of parent fact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mature career choice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6(1), 175-199.
- Lee S-R & Oh Y-J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self-concept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9), 113-123.
- Lee Y-J & Hyon J-H (200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aturity, parents' attitude toward their child upbringing and self-concep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4(2), 29-43.
- Lee Y-S (2004). *The individual variable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 Lim S-H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eon University.
- Moon M-S (2010).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family relations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trate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 No E-S (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 Olson, D. H. & Barnes, H. L. (1985).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Family Process*, 56, 438-447.
- Park J-E (2007). *How the communication and attachmen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parents' upbringing attitudes influence the children's self-estee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argeting female middle, high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un-Yang Universit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ol C-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mental health, attachment to friends and parents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Song H-J (2002). *A comparative study on career awareness, self-concept and self-esteem between elementary schoolers in out-of-the-way rural area and urba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 Song T-M & Kim G-S (2012). 보건복지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나래.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Row.
- Yang W-K (1999). *The relations between peer acceptance and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Yoo Y-M & Moon S-T (2005).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18(2), 1-19.
- Yoon H (2011). A study on predictive factors for and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8, 97-12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환경(부모양육태도, 가족응집성), 또래환경(또래관계의 질, 또래 괴롭힘)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시 4개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2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및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족환경은 또래환경에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가족환경보다 또래환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환경과 또래환경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또래환경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가족환경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또래환경과 자아존중감이 차례대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환경, 또래환경,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7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8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9월 19일